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 개최

30일까지 경연대회 접수… 11월 1~3일 완주군 일원서 개최

조선시대 최초 양반광대이자 8대 명창으로 꼽힌 완주예인 권삼득을 추모하는 전국국악대제전이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완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25회째를 맞는 국창 권삼득 추모 국악대제전은 실력있는 국악인재의 참여 확대를 위해 최고상인 권삼득상(국회의장상)의 상금을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상으로 한지한복 의상권을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권삼득이 창시한 덜렁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판소리 경연 대중화를 위해 순수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제1회 덜렁제 더늠 장기자랑'도 신설했다.

덜렁제는 판소리에서 처음에 높은 소리로 호령하듯 질러 내다가 차차 내려오는 가락의 창법을 말한다. 씩씩하고 거드럭거리는 창법이 특징이다.

경연대회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이뤄지며, 내달 2일 완주향토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판소리와 무용, 기악(가야금병창 포함), 타악 등 4개 분야에 걸쳐 일반부와 신인부, 학생부로 나눠 예선이 단심제로 열린다.

본선은 3일 판소리 명창 일반인부, 무용, 기악(가야금병창) 부문 경연으로 펼쳐진다.

국창 권삼득 추모 국악대제전은 (사)한국국악협회 완주지부 주관으로 열리며, 첫날인 1일에는 권삼득 선생 추모제가 용진읍 생가터에서 열리고, 풍류대장 콘서트가 오후 7시 30분 완주군 축구장에서 열린다.

풍류대장 콘서트는 최예림, 최재구, 음유사인, 서일도와 아이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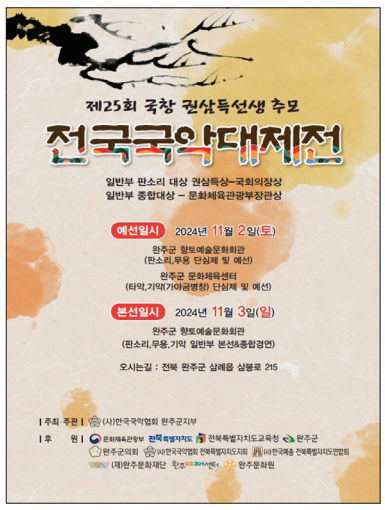
특히, 최예림은 제11회 국창 권삼득 국악대제전 판소리부문 대상 권삼득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2일과 3일에는 권삼득의 정취를 따라가는 소리길 투어가 열리고, 향토예술문화에서 추모 삼행시 짓기, 덜렁제 더늠 장기자랑, 〈복면가객 권삼득〉 창작공연이 펼쳐진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가 낳은 국창 권삼득 선생을 추모하는 국악대제전을 전국 최고의 국악진흥 축제로 키우겠다"며 "250년 전 최초 비가비 광대 권삼득의 천재성과 예술성을 현대인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 양반 출신 소리꾼인 국창 권삼득 선생(1771~1841년)은 8대 명창 가운데 한 명으로 사람·새·짐승의 세 가지 소리를 터득해 삼득(三得)이라 불렸다. 완주 용진면 구억리에는 권삼득 선생 생가터와 소리수련을 한 소리굴, 묘역 등이 보전돼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제25회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 포스터

'광한루원 버스킹 어떰' 가을 정취 만끽

남원시, 13일 공연 ·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는 오는 13일 광한루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버스킹 행사 '광한루원 버스킹 어떰(Autumn)'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한루원 피크닉 행사와 연계되어 방문객들에게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며, 팝, 재즈, 싱어송라이터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가을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13일 오후 17시부터 19시까지 세 차례의 공연이 펼쳐지고,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버스킹 감상을 위한 등받이 의자와 담요가 제공될 예정이며, 버스킹 종료 후에는 커플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별별 커플 달달 시네마'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광한루OnePick크닉'과 같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들이 남원의 가을을 만끽하며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광한루원 버스킹 어떰(Autumn)이 남원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함희원 씨어터, 현대무용극 '아기'

1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베이비 박스' 중심 전개 공연

'함희원 씨어터'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베이비 박스를 중심으로 한 현대무용극 '아기'를 선보인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에 따르면 현대무용극 '아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인 '베이비 박스'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기라는 존재를 통해 인간의 양면적인 모습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표현했다. 작품 안에서 무용수들은 아기와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돼 각자의 시선으로 베이비 박스를 마주한다.

이 작품은 아기를 키워본 적 없는 어른들의 돌발적 상황들을 대입했으며, 단순히 베이비 박스에 대한 어두운 면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아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유쾌함, 따뜻한 위로, 공감, 분노, 행복감 등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희로애락이 담긴 공연 '아기'는 관객들에게 작지만 거대한 여운을 남기며 '아기'라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줄 전망이다.

함희원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무대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무대를 선보일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관람권 예매는 인스타그램(@hamheewon__theater) 내 상단 프로필 링크 또는 문자로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석 30,000원이다. 예매에 관한 문의는 함희원 씨어터(010-5118-9792)로 하면 된다.

한편, 공연을 준비한 '함희원 씨어터'는 전주에서 설립돼 활동하는 무용 단체로, 관객들에게 대중성 있는 예술작품을 선보이고자 여러 작품을 작업해 공연하고 있다.

또한 '함희원 씨어터'는 현대무용의 난해함이 아닌 현대무용의 단순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관객에게 전달해 무용 공연을 처음 보는 관객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작품을 개발하고 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함희원 씨어터(010-5118-9792)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입점 상품 · 전시 대관 작가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주공예품전시관 입점 상품 및 전시관 대관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공예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공예문화산업 거점 공간으로 △전국의 우수공예품을 선정해 소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관' △공예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관'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일 전당에 따르면 먼저, 판매관 입점 상품 모집은 공예 전 분야에 걸쳐 공예작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실물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은 11월 1~5일 이메일로 진행되며, 실물 상품 접수는 11월 6~8일 현장접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시 1관과 2관의 대관은 공예 작가와 전통 공예를 우선으로 모집하며, 전시기간은 2025년 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다. 접수는 11월 10일까지며, 대관료는 하루 기준 6만6천원으로 최소 6일 기준 39만6천원이 부과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공예품전시관 누리집(jeonjucraft.or.kr)이나 공예산업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지역 공예문화를 선보이는 거점 공간으로 전국의 우수한 공예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예품의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데 함께할 공예 작가 및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플레이리스트! 달하' 개최

정읍시와 시 지역활성화센터는 지난 6일 '플레이리스트! 달하'의 4번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공연 시리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8월부터 시작된 이 공연은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까지 4회차 공연을 마쳤다.

다가오는 마지막 5회차 공연은 오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퓨전국악과 타악연희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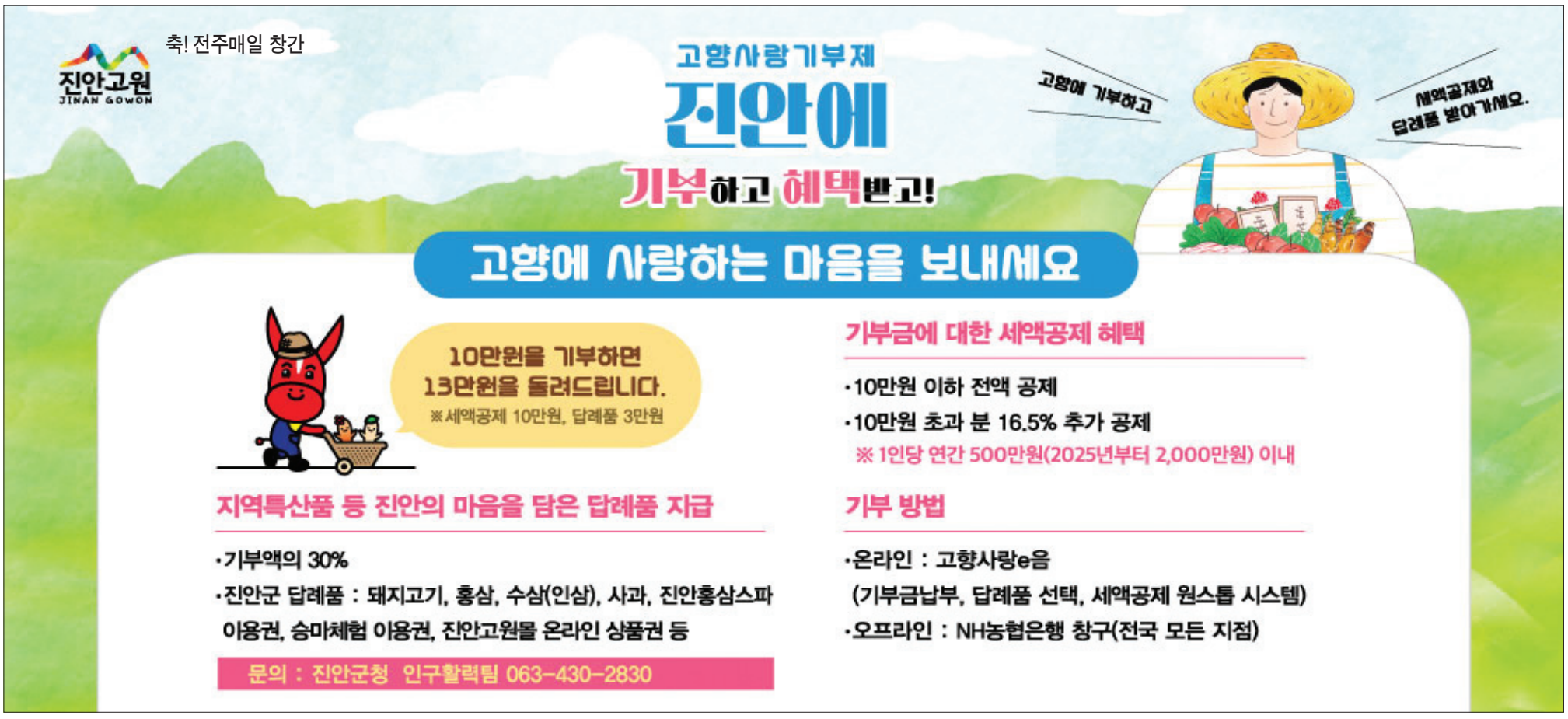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예생활 이벤트' 마지막 회차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9일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공예생활 이벤트'의 마지막 회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예생활 이벤트 행사에서는 △신기한 매직풍선 △뭉게뭉게 솜사탕 △내 손으로 만드는 전통딱지 △날아라 고무신 양궁 △전통놀이(투호·제기차기·딱지치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첫 프로그램인 '매직풍선'과 '솜사탕' 체험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옛 추억을 떠올리는 향수를 선사했다. 참가자들이 직접 전통 딱지를 만들어 즉석에서 딱지치기 대결을 펼치는 '전통딱지'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이 밖에도 에어(air) 인형을 활용한 SNS 홍보 이벤트도 진행됐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공예생활 이벤트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예 체험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